

전남 동부권

여수 공영 자전거 7월부터 달린다

200여대 비치... 엑스포 홍보관·오동도 코스 등 시민·관광객들에 제공

‘2012 세계박람회’ 개최자인 여수시가 추진하는 무인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6월까지 ‘U-Bike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갖추고 7월부터 시범운영,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유료 운영에 들어간다.

이용료는 연 회원 2만원, 월 회원 3000원이다.

비회원(하루 회원)은 1000원만 내면 동일 사용이 가능하나 반드시 2시

간 단위로 자전거 스테이션에서 체크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시 시간당 500원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시민의 녹색 대중교통 수단과 외지 관광객들이 지역 명승지를 탐방하는 탈것으로 활용하도록 자전거 200대를 마련, 시내 16곳의 자전거 스테이션에 비치해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6월말에 홈페이지(www.bike.yeosu.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시범운영 기간동안 1일 2시간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공영자전거 시스템은 16개 스테이션에서 무인으로 자전거를 대여·반납 받는 서비스로 자전거에 설치된 스마트타말기를 통해 이동거리, 대여 시간, 운동량 측정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대여·반납하는 ‘스테이션’은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뉜다. ‘제1 권역’은 시청을 중심으로 쌍봉동, 소호동 일대의 생활·레저용 코스로, ‘제2 권역’은 이순신광장, 엑스포 홍보관,

오동도 일대의 관광용 코스로 마련된다. 모든 스테이션 주변에서는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인으로 대여·반납이 가능하며, 비회원은 핸드폰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 200대로 운영을 시작해 반응이 좋으면 자전거 대수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 ‘공영자전거’ 시스템은 순천시(은누리)와 경남 창원시(누비자)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보성군 회천군 녹차 밭에서 본격적인 찻잎 따기가 한창이다. 올해는 동해(凍害)로 예년보다 보름가량 찻잎 채취가 늦어졌다. <보성군 제공>

광양에 158명상 종합병원

사랑병원 시설확장... 내달 1일 본격서비스

158 병상 규모의 민간 종합병원이 광양에 문을 연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중마동에 위치한 ‘광양 사랑병원’이 의료진 및 장비보강과 시설확장을 하고 다음달 1일 종합병원으로 승격될 예정이다.

7381㎡ 규모의 1동(지하 1층·지상 8층)·2동(지상 6층)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0개과가 들어선다.

특히 전문의사 18명과 간호사 70명 등 175명의 직원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반의 준비

를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개원한 ‘광양 사랑병원’은 그동안 꾸준한 최상의 의료진 확보 및 시설·장비보강으로 대학병원급에서 보유하는 독일 1.5T 지멘스 6세대 MRI 도입과 인공신장센터를 완비하는 등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광양 시민들은 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광양사랑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 승격으로 지역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pjy4079@

여수 일부지역 24일 수도물 공급 중단

여수시내 일부 지역에 오는 24일 수도물 공급이 중단된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도수관로 제수변 맨홀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쌍봉동, 시전동, 여전동, 주상동, 삼일동, 소라면 지역에 수도물 공급을 중단한다. 소

라면 죽림지구와 덕양 일부지역은 제외된다. 시는 화지동 1163-30번지 도수관로의 이음 용접부위와 제수밸브 플랜지에서 노후로 인한 부식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 이날 복구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061-690-2918)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순천 연동마을 풍전주유소~봉화터널 도로 개설

순천시 연동마을 풍전주유소과 봉화터널간 연결 도로(길이 1210m)가 개설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8년 봉화터널 개통 이후 원도심에서 급당, 왕지지구 및 광양 방면 1일 2만여 대의 차량이 조래 사거리에서 물리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던, 시행하고 있다.

시는 18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단계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풍전 주유소에서 대주 아파트간(560m) 구간에 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 지장건설 철거 및 비우발과 등을 완료하고 내년이 가로수 식재와 포장공 등을 시행, 내년 4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섬진강 기차마을서 꼬마잠자리 축제

‘꼬마잠자리 환경축제’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과 문화센터, 섬진강 침실습지 등지에서 열린다.

‘사람과 자연은 하나, 환경이 미래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환경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회 환경 세미나, 환경 사생대회 등 전시, 체험, 공연 행사위주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첫날은 섬진강 생태습지 걷기대

회를 비롯해 은어·참게 등 토종어류 방류 행사가 진행된다. 섬진강 살리기 보전정책 마련을 위한 ‘국회 환경포럼’은 섬진강 호우 피해 방지와 지원대책,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련한다.

또 환경을 소재로한 사생대회를 비롯해 환경상식 O×퀴즈와 관광객 장기자랑인 환경 골든벨, (사)대한전통문화 예술협회 주관 타악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생태습지 걷기 등 다채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밖에도 폐휴대폰 모으기, 곤충·식물표본 전시와 함께 꼬마잠자리 생태학습 체험장, 폐품 활용 악기체험관 등도 운영된다.

한편 한국에 서식하는 잠자리 100여종 가운데 가장 작은 ‘꼬마잠자리’는 곡성을 습지 등에서 서식하며 멸종위기 곤충(2급)으로 지정돼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순천 백진환경 유희찬 대표 교정대상 공로상

순천교도소 교정위원인 유희찬(53·백진환경 대표)씨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유 대표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991년부터 20여년간 수용자 취업지도, 불우수용자 자

녀 학자금 지원, 교화기자재 기증 등 수용자 교화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인근마을과 자매결연 후 마을 발전과 노인복지에 힘쓰는가 하면 결식아동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유 대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라 평소 애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다”며 “수형자들도 출소하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냥 이웃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 북

LH 빠진 전북 혁신도시 다른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으로 일괄이전되고 전북으로 옮기기로 한 다른 국가·공공기관들의 이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북 혁신도시는 총 1조 500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5km)에 준공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다.

농업·국토기능군(群)으로 특화된 혁신도시에는 당초 농촌진흥청과 5개 산하기관, 한국 농수산대학,

체의 22%에 달한다.

정부가 LH 대신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전북 혁신도시로 재배치기로 했으나 직원이 500여 명에 불과해 LH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LH의 연간 지방세는 260여억 원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6억원에 불과해 세수 차액에 대한 보전방안은 물론 LH의 무산과 함께 주인을 잃은 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또 지적공사와 함께 ‘국토기능군’으로 역할할 LH의 이전이 무산

= 농촌진흥청 등 6개 국가기관의 신청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사업비는 총 2조 1200억 원,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공기관은 7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가기관이 7800여억 원, 공공기관이 7600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37%, 11%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 완공 시 기인 내년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부지와 건물은 우선 매각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이전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에 부지 계약만 체결한 채 신청사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일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다소 변화할 수 있어 전북 혁신도시의 내년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기로 한 공공기관 대부분이 부지를 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본사 사육이나 부지를 매각하지 못해 내년 이전과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전북 혁신도시의 앞방을 위한 LH인만큼 일괄이전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분산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북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료작물 수확 시연회 김제시는 지난 18일 성덕면 남포동농협 청보리 재배단지에서 축산농가와 조사료 생산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월동 사료작물 수확 시연회를 가졌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노후화된 익산 산업단지 리모델링

산업단지 복합기능 조성 밸리협의회 출범

노후화된 익산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QWL(산업단지 복합기능 조성사업·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협의회’가 출범했다.

익산시와 한국 산업단지공단 등은 19일 익산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QWL 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협의회는 산업단지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경영자협의회와 자치단체, 기업지원기관, 교육계, 금융계, 상공업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협의체는 QWL 밸리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 등의 업무를 해 나갈 계획이다.

‘QWL밸리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를 근로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신산업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노후 생산공장 위주의 산업단지를 근로 생활의 질이 보장되는 일터로 전환함으로써 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임실 팔봉굿 8월 27일까지 상설 공연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 문화 관광프로그램에 선정된 ‘팔봉굿 보러가세’가 19일 임실군 강진면 팔봉 문화촌 상설공연장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8월 27일까지 22회에 걸쳐 펼쳐진다.

이번 상설 프로그램은 ‘서로 살리는 힘, 상생’을 테마로 판굿과 창작타악, 무용, 판소리, 퓨전 실내악 등 전통 국악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임실군 관계자는 “팔봉 문화촌을 중심으로 임실 치즈밸리, 섬진강 둘레길, 새만금,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되는 지역 간 상생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통 국악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임실군 관계자는 “팔봉 문화촌을 중심으로 임실 치즈밸리, 섬진강 둘레길, 새만금,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되는 지역 간 상생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뉴스 브리핑

군산 시민회관 새만금 판소리·무용 경연대회

‘제10회 새만금 판소리·무용 경연대회’가 20~21일 이틀간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판소리(일반부·신인부)와 무용(일반부·신인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개최된다. 20일은 각 부문 예선, 21일에는 본선 경연이 치러지며 오후 5

시에는 참가자와 군산시민을 위한 특별공연도 마련된다. 종합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각 부분별로 대상 4명, 최우수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4명을 시상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시, 행복한 가정 만드는 부부교육

정읍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2시 시청 5층 회의실에서 ‘행복한 가정 만드는 부부와 부모되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강좌는 가정경영 전문가인 강학중 한국사이버대 부총장을 초청해 애정 넘치는 부부관계

비결과 자녀의 학습능률을 높이는 방법, 자녀들에게 건전한 이상관과 결혼관을 심어주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저명인사 등을 초청, ‘시민이 행복한 특별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농수산대학·자영고와 농업발전 협약

김제시와 한국농수산대학, 김제 자영고등학교(교장 신창균)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양성과 농업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촌진흥청과 산하 5개 기관, 한국농수산대학 등

이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됨에 따라 각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의 시범도시로 육성시켜 나갈 구상하에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수산대학은 고교·대학과정과 연계, 지역 농업인 위탁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농협에 위탁 관리

순창군은 지난 30여년동안 자체 운영한 ‘새농촌육성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에 위탁관리하고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가가 ‘새농촌육성기금’을 신청하면 군에서는 현지확인 및 심

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내역을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는 한달간의 대출적심사를 통해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새농촌육성기금’의 운용이율은 1.5%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신청사 착공 차일피일 ... 2012년 완공 불가능

김완주 지사 “LH 재배치 않으면 반납하겠다”

지방행정 연수원 등 8개 국가기관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지난 2008년 착공한 혁신도시의 전체 부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현재 분양률도 90%로 전국 최고다.

하지만 중추 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경남에 일괄이전됨으로써 전북 혁신도시 조성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LH 빠진 전북혁신도시 반쪽 전력= 13개 이전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차지하는 면적은 1.8%에 불과하지만 인원은 전

원으로써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기능군’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LH가 전북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이고, 국토기능군이 상실된 탓에 LH가 빠진 혁신도시는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김종업 혁신도시 추진단장은 “LH가 없는 전북 혁신도시는 빈껍데기나 다름없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다른 공공기관은 필요하지 않다. LH가 재배치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기관 예산 확보 지지부진